

【츠보타 죠지 문학상】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3월 26일 도쿄에서 「제29회 츠보타 죠지 문학상」 수상 축하연이 개최되어 저도 주최자로서 참석했습니다.

츠보타 죠지 (오카야마 출생 1890-1982) 선생님은 일본을 대표하는 아동 문학 작가로서 「유령의 세계」 「바람 속의 아이」 「아이의 사계」 등 어린이의 여유로운 세계와 어른들의 불안과 세상의 욕구가 혼합된 독특한 세계관이 인상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츠보타 죠지 문학상」은 이러한 츠보타 죠지 선생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오카야마시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한 것으로 매년, 어른과 아이가 공유할 수 있는 세계를 그린 뛰어난 문학 작품에 수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나오키상 작가의 아사이 료우씨 (24세)의 「세계지도의 초안」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보육원에 사는 초등학생인 다이스케와 친구들이 외로움과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절을 떠나는 사오리를 위해 어떤 「작전」을 계획한다는 이야기로서, 저도 읽어봤는데 작년 말에 방문한 오카야마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축하연에서는 아사이 료 씨와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분은 뜻밖에도 작품을 쓰기 위해 보육원을 방문해 취재 할때에도 아이들과 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가능한 객관적으로 쓰고 싶었던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려가 깊은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 작품으로 「왕따 등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부딪치지 않아도 된다. 도망쳐도 괜찮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 작품을 읽고, 각각 안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기회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